



10명 안팎 ‘다자구도’...강기정 재선 여부 최대 관심

광주시장

姜시장, 혁신행정 발판 재선 도전
민행배, 검찰개혁 앞장 몸집 키워
문인, 행정경험 강점 내세워 출마
이병훈, 국가예산 성과 광폭 행보
정준호, 정책성과 축적 도전 체비
진보 이종욱·국힘 안태욱 출사표
정의 강은미 고심...혁신당도 널دت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 정치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호남 정치 1번지’ 광주시를 이끌 차기 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제3지대와 야권 역시 후보군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장 선거는 현 강기정 광주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맞서는 형태의 다자 대결 구도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후보는 10명 안팎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이 가세하는 복합 구도가 예상된다.



〈현직·가나다 순〉

무엇보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재선 성공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강 시장은 제17·18·19대 3선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부수석을 지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당시 시장을 꺾고 본선에서 7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10시 출근제, 공공어린이집야병원 등 돌봄정책을 시장 전면에 배치하고 인공지능(AI) 산업을 광주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설정, 광주의 체질 전환을 시도해 왔다. 또한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 중심의 혁신 행정을 펼쳤다.

지난해 대선 이후 소비쿠폰 책상 논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 등 이어진 시장 악재로 강 시장의 재선 전망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지만, 최근 ‘민간·군공함 무안 통합이전 합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상부도로 개방’ 등 현안들이

해법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맞서는 대항마로 민행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울)이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민 의원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과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뒤 재선에 성공하며 중앙과 지방을 넘나드는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당내 존재감을 키웠고 현재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도시 안전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 관료 출신인 문인 북구청장도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문 청장은 광주시 지하철전설본부장, 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 등을 지

내며 시장 전반기 두루 경험한 정통 행정관료다.

북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 5천700억원이던 북구 예산을 1조2천억원까지 확대하고 13회 연속 예산 신속 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재정 집행 성과를 축적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문 청장은 광주지역 인구 감소와 재정난, 산업구조 변화라는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도 정치적 재기를 노리며 출마 체비를 마쳤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설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립 등 굵직한 지역 사업을 이끈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최근에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호남권 국가 예산 확보 성과를 내면서 이 수석부위원장의 정치적 존재감도 함께 부

각되고 있다.

특위 실무를 이끌며 예산 반영 과정에 앞장섰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발판 삼아 체급을 키우고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정준호 국회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중앙정치 경험과 정부 정책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최근 KTX·SRT 통합 추진에 따른 ‘호남선 좌석 확대’라는 가시적 성과를 통해 지역민 교통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등 광주시장 출마를 앞두고 정책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는 평가다.

진보당에서는 이종욱 민주노동당 광주지역본부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30년의 공직 경험과 노동 현장 활동을 바탕으로 공공병원 설립, 평생 임대아파트 도입 등 차별화된 공약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광주시당 위원장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아직 공식 후보군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최근 조국 대표가 “염두에 둔 인물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안태욱 광주시당 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굳혔으며 강현구 동남갑 당협위원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개혁신당 최현수 광주시당 위원장 역시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본문진 기자

김영록 ‘3선 가도’ vs 다선 국회의원 그룹 ‘집안싸움’

전남지사

金지사 “성과 이어가야...출마 확고”
이개호, 1월중 선거전 본격 뛰어들듯
신정훈, 김지사 견제하며 보폭 넓혀
주철현, 동부권 소외론으로 세 걸잡
국힘 김화진 출마·진보 김선동 물망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역 내 최대 관심 선거구 중 하나인 전남지사를 향한 정치권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선 7·8기 재선 도박(道伯)인 김영록 지사의 3선에 맞서다선 국회의원 그룹이 도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민주당 경선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의 ‘3선’ 찬반과 이를 매개로 한 ‘동부권 소외론’, 민선 7·8기 도정 평가 등 크게 3개 사안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전문가의 분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경선 컷오프는 없다”고 공언해 김영록 지사의 3선 가도에 외



〈현직·가나다 순〉

형적 장애물은 사라졌지만, 경쟁 후보들이 동부권 소외론과 3선 피로감을 쟁점화할 경우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김영록 지사의 3선 성공 여부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선에 이름을 올린 도지사는 박준영 전 지사(2004년 6월~2014년 6월)가 유일하다. 박 전 지사의 경우 고(故) 박태영 전 지사(2002년 7월~2004년 4월)의 사망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임성한 만큼 ‘2.5선’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허경만 전 지사(1995년 7월~2002년 6월)는 재선에 그쳤고, 이낙연 전 지사(2014년 7월~2017년 5월)는 초선 재임 중 국무총리로 발탁돼 재임 기간이 채 3년이 되지 않았다.

김영록 지사가 3선에 성공하면 진정한 3선 도백으로 기록된다는 의미다.

완도 고급 출신인 김 지사는 강진군수와 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뒤 18·19대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2018년 민선 7기 전남지사에 당선됐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38개월(대선 기간 제외) 중 34개월 동안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1위를 기록했다. 앞서 민선 7기에도 조사가 이뤄진 43개월 중 30개월 동안 지지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 지사는 지난해 오픈 AI·SK의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국가AI컴퓨팅센터,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김 지사는 오는 18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달 23일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확고하다”며 “그동안의 성과들이 지금 다 이뤄진 것은 아니고 황금같은 기회를 활용해 호남, 그리고 전남 대부분의 길로 만드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작을 제대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3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개호 국회의원(4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신정훈 국회의원(3선, 나주·화순), 주철현 국회의원(재선, 여수갑)이다.

제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개호 의원은 전남도에서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했으며 행정부지사를 끝으로 퇴임한 뒤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김영록 지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맡았다.

이개호 의원은 “공약 준비 등이 완료되면 1월 중순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 출신 신정훈 의원은 지난달 8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의 약속’으로 다시 희망의 새 길을 내겠다”며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신정훈 의원은 “김영록 도정 8년 동안 10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도민의 삶도, 전남의 경제도, 쓰러지는 민생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문

제를 제기하며 김영록 지사를 직격했다.

신 의원은 또 “전남은 지금 민생·산업·인구·기후 위기에 직면해있는데 잊지도 않은 동·서부 소외론까지 들먹이며 온갖 갈라치기로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동·서부 갈라치기로 이득을 보겠다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동부권 소외론을 주장하고 있는 주철현 의원을 정조준했다.

여수 출신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9월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뒤 각종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동부권 소외론’을 앞세워 전남 동부지역 세 걸잡에 주력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무너져가는 전남을 살릴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며 “가파른 인구 감소로 전남 17개 군 중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전남이 위기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제대로 통하는 주철현으로 바뀌어야 전남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흥 출신인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민주당 독선을 견제하고 공공선을 추구하겠다”며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진보당에서는 김선동 전 국회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김재정 기자

謹賀新年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새해엔
모든 소망 다 이루어요

희망 가득한 병오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